

윤리 후견인제도 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

(대구지사)

□ 선정근거

- 현재 공사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수과정이 미흡한 실정임

□ 제도 및 운영현황

-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신입사원의 초기 윤리관 확립 및 업무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윤리 후견인 제도를 운영

□ 문제점 진단

- 2012년 도입한 「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」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나, 시청각 자료의 연수 등 단순과정 이수로 윤리경영에 대한 신입직원들의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형성, 조직 문화로의 내재화에는 한계

□ 개선방향 및 파급효과

- 가칭 「HF 청렴윤리 후견인」 제도를 도입하여 멘토가 신입직원의 윤리 후견인을 병행
 -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멘토는 신입직원(멘티)의 실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윤리교육의 실효성 제고 가능

□ 추진일정 및 효과성 점검계획

- 신입직원 멘토링 활동 후 제출하는 학습 보고서 내에 멘토와의 윤리 교육 및 상담 실시내역을 포함하여 작성, 우수활동자 포상 건의 등